



박세리 “커리어 그랜드슬램 보인다”

(통산 메이저 4개 대회 우승)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 3R 공동 선두

‘예비 명예의 전당 회원’ 박세리(30-CJ)가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한번 이상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에 바짝 다가섰다.

박세리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6천673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중간합계 4언더파 212타로 수잔 페테르손(노르웨이)과 공동 선두에 나섰다.

첫날 이븐파 72타에 이어 2라운드 70타, 그리고 이날도 2타를 줄이며 차근차근 순위를 끌어올린 박세리는 이로써 미루고 미뤘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에 9부 능선을 넘었다.

박세리는 1998년 LGPA챔피언십과 US오픈을 제패했고, 2001년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에 이어 2002년과 작년에도 LPGA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다섯개나 갖고 있지만 유독 나비스코챔피언십과 인연이 없어 ‘화룡점점’을 미뤘었다.

오는 가을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박세리가 우승하면 루이스 석스, 미키 라이트, 팻 브래들리, 줄리 잉스터(이상 미국),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에 이어 LPGA 투어 일곱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머가 된다. 미션힐스골프장에서 2002년 9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순위였던 박세리는 그러나 코스 길어지고 러프가 두터워지는 등 난이도가 높아진 올해 최고 성적을 기대하게 됐다.

공동선두 그룹에 2타 뒤진 5위로 경기에 나선 박세리는 1번홀(파4)에서 버디를 뽑아내며 산뜻하게 3라운드를 시작하며 이어 4번홀(파4) 버디와 13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이며 선두로 올라섰다.

15번(파4), 17번홀(파3)에서 1타씩을 잃으며 상승세를 잃는 듯 했던 박세리는 18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이 마음먹은대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10m 거리의 버디 퍼트가 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공동선두로 3라운드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세리의 우승은 쉽지 않은 양을 전망이다. 폴라 크리머와 미건 프란셀라(이상 미국)가 1타 뒤진 공동3위에 올라 있고 장타자 브리타니 린시컴(미국)은 2타차 5위로 따라 붙어 피말리는 최종 라운드를 예고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SBS 골프 투어 1·2차 대회 함평다이내스티CC서 개최

2~3일, 9~10일 4일간

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SBS GOLF Callaway TOUR 1·2차 대회’가 4계절 양진디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대표 이준희)에서 2~3일, 9~10일까지 4일간 열린다.

이번대회는 2~3일까지 1차대회에 140여명의 세미프로들이 출전해 36홀 스트로크플레이를 펼쳐 40명을 선발한다.

1차대회를 통과한 40명은 오는 9~10일 2일간 역시 36홀 스트로크플레이를 펼쳐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우승상금은 4천만원이다.

한편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는 오는 16~17일까지 2일간 티칭프로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3천만원)가 열리며 다음달 9~12일까지 4일간 KB국민은행스타투어대회(총상금 2억원)가 개최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성 2경기 연속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 1일 올드 트래퍼드 홈구장에서 열린 블랙번 로버스와의 경기에서 세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시즌 5호골, 1도움... ‘활기 넘쳤다’ 평점 7

맨유, 블랙번에 4-1 대승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두 경기 연속 득점포로 시즌 5호골을 터트렸다.

박지성은 1골과 1도움을 올려 맨유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박지성은 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블랙번 로버스와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앞선 후반 38분 추가골을 터트렸다.

박지성은 지난 달 17일 불턴전(4-1 승)에서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 두 골을 뽑은 데 이어 두 경기 연속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했다.

박지성은 후반 45분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패시브를 어시스트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공격 포인트는 5골과 2도움. 맨유는 전반 29분 블랙번의 매트 더비샤이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소나기 골을 퍼부어 역전했다.

리그 7연승을 달린 맨유는 25승3무3패(승점 78)로

선두를 굳게 지켰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FA컵을 포함해 1월28일 포츠머스전(2-1 승)부터 이어온 연속 경기 무패 행진도 14경기(12승2무)로 늘었다.

4-4-2 전형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선 박지성은 왼쪽 측면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자리를 바꿔가며 투톱 공격수 웨인 루니와 라이언 깁스의 뒤를 받쳤다.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경기 후 박지성에게 ‘lively(활기넘쳤다)’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줬다.

한편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업튼파크에서 펼쳐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다.

이동국은 교체 선수 명단(5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미들즈브러 감독이 선발 투톱 아예그베니 아쿠부와 마크 비두카를 끝까지 바꾸지 않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미들즈브러는 전반 2분 보비 사모라, 전반 45분 카를로스 테베스에게 연속골을 내줘 웨스트햄에 0-2로 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공격포인트 두자릿수 가능하다

박지성이 물오른 공격 감각을 자랑하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노려보게 됐다.

1일 블랙번 로버스와의 경기에서 1골과 1도움을 보탠 박지성은 2006~2007 시즌 정규리그 공격 포인트가 5골, 2도움으로 7개가 됐다.

박지성은 앞으로 포츠머스(원정), 셰필드(홈), 미들즈브러(홈), 에버턴(원정), 맨체스터 시티(원정), 첼시(원정), 웨스트햄(홈)전 등 5월13일까지 모두 7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1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7개를 작성한 만큼 지금의 상승세만 이어간다면 최소 3~4개의 골과 어시스트를 더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세 차레나 더블 공격 포인트를 올려 ‘몰아치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박지성의 공격력이 강화된 것은 위치 선정이 좋아진 덕분으로 분석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세리가 1일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 11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